

《世說新語》를 통해 본 謝玄의 인물형상

김진영*

<목 차>

1. 머리말
2. 謝玄의 인물형상
 - 1) 謝玄이 처했던 시대상황
 - 2) 《世說新語》에 보이는 謝玄의 인물형상
3. 맺음말

1. 머리말

正史인 《晉書》는 敍事의 주된 목적이 史的 사실의 인과관계나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있는 반면, 《世說新語》는 敍事의 중심이 인물형상의 부각에 있다. 다시 말해서 《晉書》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의 인품이나 형상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도입부에 초보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 敍사의 전개 과정으로 볼 때 敍사의 핵심이 사건에 있어 인물의 전반적인 형상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世說新語》는 전편을 통하여 敍事의 중심이 인물형상이나 인품 등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晉書》와는 달리 인물성격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발견하고 인물에 대한 풍부하고 빼어난 예술적 표현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처해있던 역사적 사회상황과 인물의 성격 등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해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미 필자가 《中國文化研究》 3, 8, 10집에 발표한 논문의 연속시리즈로서¹⁾ 이 번에는 東晉의 장수 謝玄(343-388)을 대상으로 그 고사를 적출 집중시

* 인덕대학 중국어과 교수

1) 敍事의 중심이 사건에 있는 《晉書》와는 달리 《世說新語》는 敍事의 핵심이 인물형상의 부각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橫的 연구방법에 의한 개별적 분석(예를 들어 비교, 비유

키는 방법을 통하여 謝玄의 완정한 형상²⁾을 창출해 보고, 아울러 품평의 특징과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謝玄은 《世說新語》 등장인물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東晉의 인물들 가운데 총 등장회수 22회라는 비교적 높은 등장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謝玄의 아들인 謝琰이 그 뒤를 이어 비서랑에 임명되었지만 일찍 죽고 말았다. 謝琰의 아들인 謝靈運이 그 뒤를 이었다. 謝琰은 어려서부터 영민하지 못했으나 謝靈運은 문체가 화려하고 뛰어난 謝玄이 일찍이 “내가 謝琰을 낳았는데 謝琰이 어찌 謝靈運과 같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라고 칭찬하였다. (子琰嗣, 秘書郎, 早卒. 子靈運嗣. 琰少不惠, 而靈運文藻艷逸, 玄嘗稱曰: 「我尚生琰, 琰那得生靈運!」)³⁾

또한 위의 기사가 입증하듯이 謝玄이 자신의 친자식보다 더 아끼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 친손자가 바로 중국문학사에 있어 최고의 산수시인으로 불리우는 謝靈運이라는 점과 謝玄이 淝水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淝水전투는 東晉 및 전체 漢族의 역사적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이였다. 兩晉代에 남방의 漢族세력은 그다지 공고하지 못했고, 江南은 아직 완전하게 漢化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漢族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아 蠻人이 여전히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만약 당시 淝水전투에서 북방 胡族이 승리했었다면 東晉왕조의 몰락은 물론, 중국 전체 漢族도 오랫동안 胡族의 통치를 받아 부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東晉의 장수 謝玄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등의 표현기교)이나 典型別로 분석하는 순차적 방식이 아닌 縱的인 방법으로써 각 편목에 산재되어 있는 한 인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출, 분석하는 종합적인 인물분석을 통하여 王導와 謝安, 桓玄, 王羲之 등 주요인물 약 17명의 인물형상을 이미 살펴보았으며, 그 나머지 인물들의 형상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작업은 《世說新語》의 史料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世說新語》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물들의 형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형상(形象)이란 心中의 관념 등을 어떤 표현수단에 의하여 具象化하는 일, 또는 形狀, 形相의 의미로 쓰여 물건이나 사람의 형체와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가 언급하는 형상이란 후자를 가리킨다.

3) 《晉書》 卷79 《謝玄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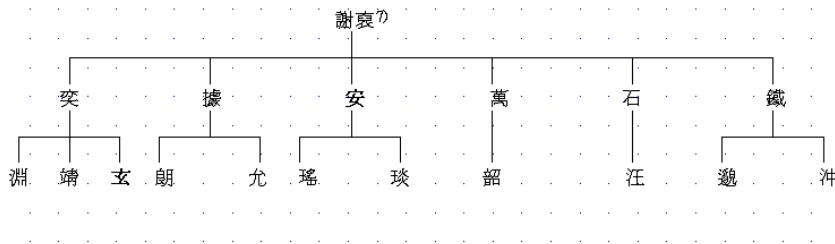
4) 지금의 安徽省에 있는 淮河의 지류인 南淝河.

될 것이다.

2. 謝玄의 인물형상

1) 謝玄이 처했던 시대상황

謝玄은 자가 幼度이며, 陳郡 陽夏⁵⁾사람으로 東晉의 명재상이었던 王導 이후, 江左의 풍류재상으로 불리우는⁶⁾ 陳郡 謝氏 謝安의 조카이다.



謝玄은 자가 유도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사촌 형인 謝朗과 함께 숙부인 謝安에게 중시를 받았다.(玄字幼度. 少穎悟, 與從兄朗俱爲叔父安所器重.)⁷⁾

한편 위의 기사는 謝玄이 어려서부터 숙부인 謝安에게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陳郡 謝氏는 名門大族이 아니었으나 謝安의 조부 謝衡이 西晉때 國子祭酒를 지낸 뒤로 西晉과 東晉의 교체시기에 謝衡의 아들 謝鯤과 謝鯤의 아들 謝尚을 거치면서 점점 가문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謝安의 동생인 謝石과 조카 謝玄 등이 淝水전투에서 前秦 苻堅의 군대를 대패시키며 큰 공을 세웠고, 조정에서는 謝安이 政事를 맡고 있어 이후 謝氏는 東晉의 개국공신인 王氏와 ‘王謝’로 명칭되며

5) 지금의 河南省 太康.

6) 《南史》 卷22 〈王儉傳〉. 「王儉은 늘 사람들에게 江左의 風流 宰相으로는 謝安뿐이라고 말했다 (儉常謂人曰, 江左風流宰相, 惟有謝安.)」

7) 《晉書》 卷79 〈謝玄傳〉.

東晉 제일의 名門大族으로 尊崇받았다.

泰始 元年(265) 武帝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일가 친척인 諸王들을 分封하였다. 이 제도는 郡을 國으로 하고, 食邑이 2만 호에 이르는 곳은 大國이라고 하여 3軍을 두어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食邑이 1만 호인 곳은 次國이라 하여 2軍을 두어 3천 명의 군대를 가졌고, 食邑이 5천 호가 되는 자는 1軍을 두어 1천 5백 명의 군대를 가졌는데, 그 해 자그마치 27명의 王이 分封되었다. 처음 諸王들은 모두 京師에서 임명되었으나 그들 모두 병권을 갖고 있어 스스로 자기 나라에서 文武官吏를 선택할 수 있었다. 咸寧 3년(277)에 썸은 諸王들을 각각 그들의 나라로 보내고, 그 중 일부 王들에게는 諸州의 軍事를 감독하게 하였다.⁸⁾ 이러한 조치는 수시로 큰 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어 결국 八王의 亂⁹⁾이 일어나게 된다. 永熙 元年(290) 武帝가 죽고 연소한 惠帝가 즉위하자 武帝의 황후 楊氏는 선황의 遺詔라 하여 그녀의 아버지 楊駿을 재상으로 앉히고 국정을 유린하였다. 惠帝의 황후 賈氏는 汝南王 司馬亮과 楚王 司馬瑋를 서울로 불러 올려서 楊氏 일족을 도살한 후, 연이어 司馬亮과 司馬瑋를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永寧 元年(301) 趙王 司馬倫은 賈氏 일족을 제거하고 惠帝를 폐한 후 스스로 황위에 올랐으나, 齊王 司馬冏과 成都王 司馬穎의 공격을 받아 자살하고 惠帝가 복위되었다. 그 후 長沙王 司馬乂, 東海王 司馬越, 河間王 司馬顥도 군사를 일으켰으며, 司馬越이 冏과 顥를 죽인 후, 옹립한 惠帝가 죽자 懷帝를 즉위시키면서 晉室의 諸王이 서로 골육상잔하는 16년간의 참극은 막을 내렸다. 西晉은 여러 지역에 군사적 기반을 둔 分封王들의 권력투쟁과 내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특히 元康 元年(291)부터 光熙 元年(306)까지 16년에 걸쳐 벌어진 이 八王의 亂은 西晉의 기반을 무너뜨린 결정타였으며, 諸王들이 병력보급을 위하여 끌어들이던 匈奴·鮮卑 등 북방 胡族은 그 후 華北 각지에서 성장하여 이른바 五胡十六國 난립의 주원인이 되었다. 八王의 亂 이후 匈奴의 石勒은 시국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洛陽을 향해 진군, 劉曜와 힘을 합쳐 洛陽을 함락시키고 八王의 亂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東海王 越이 옹립한 懷

8)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32쪽 참조.

9) 皇族(司馬氏) 8명의 왕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며, 八王은 汝南王 亮·楚王 瑋·趙王 倫·齊王 冏·長沙王 乂·成都王 穎·東海王 越과 河間王 顥을 가리킨다.

帝를 사로잡아 사형시켰다. 懷帝의 조카인 愍帝는 洛陽 함락의 소식을 듣고 長安에서 천자에 등극하였지만,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공격을 받고는 平陽에 송치되어 죽음을 당했다. 이 시기 匈奴族 뿐 아니라 氏族, 鮮卑族 등의 異民族이 도처에서 일어나 민족간의 충돌이 진행되고 천하는 형언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결국 西晉은 무너지고 魏의 옛 도읍인 建康을 중심으로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¹⁰⁾

諸王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 북방의 일부 胡族도 시국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晉의 굴레를 벗어나갔다. 이 시기 북방에서는 氏族이 세운 前秦이 苻堅이라는 명군과 漢族 출신의 명재상인 王猛의 통치 아래 크게 세력을 확대해 太和 5년(370)에 鮮卑族의 前燕을 멸망시키고, 寧康 元年(373) 東晉에게서 四川省을 빼앗았으며 太元 元年(376)에는 甘肅省에서 서역에 걸쳐있던 前凉을 병합시켜 광대한 華北지역을 통일하였다. 남방의 東晉에 대하여 苻堅은 여러 차례 침략하였으나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적극적으로 대규모 남침을 준비하여 太元 7년(382) 천하통일을 위해 선봉군단 25만 명과 기병 27만, 보병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였다. 당시 東晉은 孝武帝 즉위 후 謝安이 집정하고 있었는데 謝安은 동생인 謝石을 총대장으로 하고 謝玄을 선봉군단장으로 임명하였다. 謝玄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北府兵'이라는 강병을 만들고 劉牢之를 參軍으로 삼아 정예군을 지휘하게 하였다. 苻堅이 이끄는 대군은 여러 지역을 함락시키고 결국 淝水에서 東晉軍과 대치하였다. 東晉의 장수 謝玄은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자 기지를 발휘하여 苻堅에게 사자를 보내 군사를 조금만 뒤로 이동시켜 東晉軍이 강을 건넌 후 넓은 장소에서 결전을 치르자고 제안하였고, 苻堅은 이를 받아들여 군대를 뒤로 이동시키는데 이때 수많은 병사들이 갑자기 이동하다보니 혼란이 생겼다. 이 혼란을 틈타 謝玄이 이끄는 8만의 군대가 급습하자 苻堅의 선봉이 무너지고, 무너진 군대의 무질서한 퇴각은 이어서 후속부대를 혼란시켰으며 그 결과 대군이 괴멸되고 말았다.¹¹⁾

한편 東晉의 내부적인 정치상황은 여전히 혼란한 상태였다. 桓溫이 後蜀을 정벌하고 돌아온 후, 그 권위와 명성은 날로 신장되어 조정에서도 그를 두려워하게

10) 宮崎市定 著, 曹秉漢 譯 《中國史》(서울, 역민사, 1986) 176-179쪽 참조.

11) 白壽彝 主編 임효섭 · 임춘성 譯 《중국통사강요》(서울, 이론과 실천, 1991) 160-164쪽 참조.

되었으며, 이에 會稽王 司馬昱은 桓溫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殷浩를 등용하였으나 殷浩가 前秦 정벌을 실패하고 폐출됨으로써 內外의 大權은 모두 桓溫이 장악하게 되었고, 謝安과 王坦之의 방해와 비협조에도 호시탐탐 반역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¹²⁾ 그 후 桓溫과 謝安이 죽고 琅琊王 司馬道子が 정권을 독점하여 전횡을 휘두르며 정권의 안정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내부정치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2) 《世說新語》에 보이는 謝玄의 인물형상

《世說新語》에 등장하는 총 22회의 고사는 대부분 출중한 인품과 淝水전투를 중심으로 한 謝玄의 시국에 대한 식견 및 국가 전략에 대한 재략 등 주로 품격과 재능을 부각시키고 있다.

謝玄은 자가 유도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사촌 형인 謝朗과 함께 숙부인 謝安에게 중시를 받았다.(玄字幼度, 少穎悟, 與從兄朗俱爲叔父安所器重.)¹³⁾

장성한 후, 經國의 재능이 있어 몇 차례 초빙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후에 王珣과 함께 桓溫에 의해 관리로 임명되었는데 그를 예우하고 존경하였다.(及長, 有經國才略, 屢辟不起, 後與王珣俱被桓溫辟爲掾, 並禮重之.)¹⁴⁾

위의 두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謝玄은 어려서부터 숙부인 謝安에게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장성해서도 당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막강한 세력가 桓溫에게 그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비록 하급관리이지만 존경과 예우를 받을 정도였다. 이러한 謝玄의 재능은 《世說新語》의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태부(謝安)가 여러 자제와 조카에게 묻길 : “너희들은 또한 어떻게 남의 일에

12)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56-58쪽 참조.

13) 《晉書》 卷79 〈謝玄傳〉.

14) 上揭書.

참여하여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고자 하느냐?”라고 하자, 모두들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사거기(謝玄)가 대답하길 : “비유하자면 지란과 옥수를 그들의 섬돌과 뜰에서 자라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라고 했다.(謝太傅問諸子侄:「子弟亦何預人事, 而正欲使其佳? 諸人莫有言者. 車騎答曰:「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15)

사공(謝安)이 자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묻길 “毛詩 중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자, 사알(謝玄)이 읊길 “옛날 내가 떠날 때는 버드나무 한들거리더니, 오늘 내가 올 때에는 눈비 흠날리네”라고 했다. 사공이 말하길 “큰 책모로 정령을 제정하고, 원대한 계획을 제 때에 반포하네. 이 구절에는 雅人の 깊은 뜻이 두루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謝公因子弟集聚, 問毛詩何句最佳? 暹稱曰:「『昔我往矣, 揚柳依依. 今我來思, 雨雪霏霏.』」公曰:「『訏謨定命, 遠猷辰告.』」謂此句偏有雅人深致.)16)

謝安은 東晉의 위대한 정치가였을 뿐 아니라 존경받는 교육자이기도 했다. 그는 몸소 실천하여 가르치는 ‘身敎’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을 할 때에는 당시 시대 정신의 반영과 걸맞게 자제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간주하고 존중하였다. 한 때 東山에 은거할 시기¹⁷⁾에는 家學을 전수하기 위해 때때로 집안의 자제들을 모아 놓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곤 했다. 謝安의 난해한 질문에 陳郡 謝氏의 훌륭한 자제들을 芝蘭과 玉樹에 비유하여 자신의 견해를 명쾌히 밝히고 있는 謝玄의 재능이 여러 인물들 가운데 두드러져 보인다. 《世說新語》文學篇 제52조에서 謝玄은 玃奴(匈奴)의 침입으로 원정을 떠나는 병사들의 노고와 처량한 현실을 읊은 《詩經》〈小雅·采薇〉의 구절을 佳句로 선택하였고, 謝安이 거론한 佳句는 훌륭한 덕망을 지니면 사망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주변 국가들도 순종하게 된다는 내용의 《詩經》〈大雅·抑〉의 구절이었다. 謝安이 謝氏 가문의 자제들에게 국가 경영의 원대한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佳句로 자신의 교육

15) 《世說新語》言語篇 제92조.

16) 《世說新語》文學篇 제52조.

17) 謝安은 會稽郡 上虞縣 서남쪽에 있는 東山에서 20여 년간 은거하면서 유유자적하였으며, 6-7년 동안 여러 번 벼슬에 초빙되었으나 응하지 않은 채 문장을 짓고 哲理를 분석하는 것을 즐기며 살았다.

목표를 밝히고 있는 반면 謝玄은 문학성이 뛰어난 구절을 선택할 정도로 문학적 자질 또한 출중했다.

당시의 문벌세족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聯婚을 통한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였다면, 안으로는 孝와 悌의 儒家的 덕목으로 자제들의 덕행을 고취시키고 家學을 전수하는 데 노력하였다. 儒者는 학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제한이 상당히 엄격하여 독특한 비법을 가지고 쉽게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만 전하려는 관습이 있었다.¹⁸⁾ 이는 혼란한 정치와 왕조가 끊임없이 경질되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처세를 위해 道家的 태도를 취했으나 문벌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儒術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여 자제들이 가문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주려 하였다. 이처럼 魏晉南北朝는 내면적으로 儒家의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郗超는 謝玄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苻堅이 장차 東晉을 併呑할 작정으로 이미 梁, 岐지역을 승냥이처럼 집어삼키고 또한 회수의 남쪽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謝玄을 파견하여 북벌하기로 결의했지만 논자들 사이에서는 자못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그러나 오직 郗超만은 말하길 “그는 반드시 일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와 함께 환선무(桓溫)의 막부에 있을 때 보았는데, [그는 사람들의] 재능을 모두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 비록 미천한 자 일지라도 또한 자신의 임무를 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틀림없이 공훈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나중에 謝玄이] 과연 큰 공을 세우자, 당시 사람들은 모두 郗超의 선견지명에 감탄했으며, 또한 그가 [자신의] 애증의 감정으로 [남의] 장점을 덮어버리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郗超與謝玄不善, 苻堅將問晉鼎, 既已狼噬梁·岐, 又虎視淮陰矣. 于時朝議遣玄北討, 人間頗有異同之論: 唯超曰: 「是必濟事. 吾昔嘗與共在桓宣武府, 見使才皆盡, 雖履屐之間, 亦得其任: 以此推之, 容必能立勳. 元功既舉, 時人咸歎超之先覺, 又重其不以愛憎匿善.)¹⁹⁾

한강백(韓伯)은 謝玄과 그다지 깊은 친교가 없었다. 謝玄이 북정에 나선 뒤에 여론은 그가 승전하지 못할까 의심했다. 그러나 한강백이 말하길 : “그 사람은

18)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102쪽 참조.

19) 《世說新語》 識鑿편 제22조.

명성을 좋아하니 반드시 전쟁을 잘 치룰 것이오”라고 했다. [나중에] 謝玄이 그 말을 듣고 몹시 분노하여, 한 번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길 : “대장부가 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사지에 뛰어든 것은 군주와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이니, 더 이상 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소!” 라고 했다.(韓康伯與謝玄亦無深好, 玄北征後, 巷議疑其不振, 康伯曰: 「此人好名, 必能戰。」玄聞之甚忿, 常於衆中厲色曰: 「丈夫提千兵, 入死地, 以事君親故發, 不得復云爲名!」)²⁰⁾

郗超와 謝玄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郗超는 호시탐탐 제위찬탈을 노리는 桓溫의 심복이고, 謝玄은 이를 저지하여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려는 謝安의 조카였기 때문에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반대파에게 병권을 쥐어준다는 것은 桓溫과 郗超에게 큰 모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謝玄은 사람들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 자신의 임무를 모두 완수해 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郗超는 그러한 謝玄의 평소 모습 속에서 그의 능력을 간파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郗超는 공명정대하고 大國的인 생각으로 謝玄을 천거하여 결국 謝玄은 太元 8년(383) 淝水전투에서 前秦의 苻堅 군대를 대패시켰다. 또한 “謝玄은 시국에 대한 식견이 바르고 정확했으며, 국가를 경략할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玄識局真正, 有經國之才略)”라고 한 識鑿편 제23조 劉孝標 注引 《續晉陽秋》의 기사처럼 謝玄은 위기를 극복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위 고사에서는 국가존망의 결전을 앞둔 장수의 결연한 의지와 강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東晉에 이르러서는 인물식감의 방법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더 이상 단순히 인물의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그 인물됨을 판단하지 않고 인물의 평소 언행에 중점을 두어 그 품격과 재능의 高下를 결정했다. 郗超가 謝玄이 평소에 인물을 잘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것을 보고 그가 분명 공을 세울 것이라고 단언한 識鑿편 제22조의 고사가 그 적절한 예라 할 수 있다.²¹⁾

20) 《世說新語》 識鑿편 제23조.

21) 金長煥 譯注 《世說新語》(서울, 살림, 1997) 中卷 153쪽 篇目 해설부분 참조.

사거기(謝玄)가 부친 謝安西의 상중에 있을 때, 임도인(支遁)이 방문하여 그와 담론하다가 거의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갔다.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지도림에게 묻길 : “공은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오?”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길 : “오늘 상주 사씨와 한바탕 격론을 벌이고 오는 길이오”라고 했다.(謝車騎在安西艱中, 林道人往就語, 將夕乃退, 有人道上見者, 問云: 「公何處來? 答云: 「今日與謝孝劇談—出來.)²²⁾

晉이 南渡한 후 南朝시대에 이르기까지 清談은 일반 世族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清談의 기풍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어 士族文人은 물론 승려와 제왕들까지도 談論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야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풍조는 정치적으로 소극적인 안일함만을 추구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신경 쓰지 않게 되어 사회적으로 일종의 소극적이고도 퇴폐적인 인생관을 낳기도 하였다. 초기 清談의 내용은 老莊이 주였으나 東晉 이후에는 佛學도 清談의 범위에 흡수되어 老莊과 함께 융합되었다. 몇몇 승려는 佛經 이외에 清談을 빌어 쓰고 名士들과 교류를 나누기도 하였다. 佛學과 玄學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한 철학사상이지만 修心과 養性, 생활행위 등에 있어서는 서로 통하는 점이 있었고, 게다가 이론상에 있어서도 虛無思想과 空無思想이라는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清談家들은 玄思를 좋아하여 佛敎의 이치를 玄學과 혼용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하였으며, 또한 佛經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승려들 역시 佛敎과 玄理가 서로 교감하는 점이 있어 玄學으로 佛敎를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²³⁾ 그 결과 名士들과 승려들 사이에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승려들 역시 名士들과의 談論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亂世 속에서 俗世를 벗어나려는 사람들과 통치계층의 지지로 佛敎는 흥성할 수 있었다. 東晉 중기의 支遁은 清談으로 이름 난 대표적 승려로 천하를 풍류하며 王洽·劉恢·殷浩·許詢·郗超·孫綽·桓彥表·王敬仁·何次道·王文度·謝長遐·袁彥伯 등 당대의 名流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였다.²⁴⁾ 위의 고사 劉孝標 注引 《謝玄別傳》의 기사에서도 “謝玄은 청담에 능하고 명리에 뛰어났다(玄能清言, 善名理)”라고 한 것으로 보아 謝玄 역시 권력

22) 《世說新語》文學편 제41조.

23) 朴美齡 著 《世說新語中所反映的思想》(臺北, 文津出版社, 1990) 84쪽 참조.

24) 韓皎 著 柳月誕 편역 《고승전》(서울, 자유문고, 1991) 82-83쪽 참조.

의 중심에서 왕성한 談論활동을 한 清談의 名士임이 틀림없다.

3. 맺음말

東晉은 淝水전투 이후 비록 북방을 평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적지 않은 땅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東晉의 내부적인 정치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太元 9년(384) 桓沖이 죽자 그가 차지하고 있던 荊州²⁵⁾ 刺史의 자리는 당시 공훈이 가장 많았던 謝玄이 계임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謝安은 조정의 시기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桓氏 一門의 원망으로 위협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荊州를 여전히 桓氏의 수중에 두게 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 내부도 갈수록 부패되었다. 淝水전투 이후 琅琊王 司馬道子の 권세가 날로 성하여 謝安이 점차 배척받게 되고 결국 太元 10년(385) 謝安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에 謝玄은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상소를 올리게 된다.

謝玄은 돌아온 후 병에 걸려 사직하고자 상소를 올렸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다.……(중략)…….조정에서는 뛰어난 의원 한 명을 그에게 파견하여 치료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요양하도록 하고 다시 京口로 돌아와 치료받도록 하였다.……(중략)…….謝玄은 병을 안고 郡으로 돌아와 13년에 임지에서 죽었는데 당시 나이 46세였다. 車騎將軍·開府儀三司로 추서하였으며, 시호는 獻武이다.(玄 既還, 遇疾, 上疏解職, 詔書不許.…….詔遣高手醫一人, 令自消息, 又使還京口療疾.…….玄既興疾之郡, 十三年, 卒于官, 時年四十六. 追贈車騎將軍、開府儀三司, 諡曰獻武.)²⁶⁾

위의 기사들에서 볼 수 있듯이 謝玄의 요구를 조정에서 극구 만류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謝玄의 병을 치료해 줄 의원을 파견하고 京口로 돌아

25) 荊州는 야심가들에게 내란이나 대외전쟁의 근거지로 종종 이용된 당시 東晉 최대의 군사요충지였다.

26) 《晉書》 卷79 〈謝玄傳〉.

오게 하여 결국 임지에서 46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다.

당시 苻堅이 강성하여 변방이 수차례 침범 당했다. 조정에서 북방을 방어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을 구하고자 하자 謝安이 謝玄을 추천하였다. 중서랑 郗超는 본래 謝玄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를 듣고 한숨 지며 “謝安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가친척을 추천한 것은 현명한 일이다. 謝玄은 분명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렇지 않을 것이라 여겼으나, 郗超는 “내가 일찍이 그와 桓溫의 막부에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사람들의 재능을 모두 발휘하도록 하여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해도 또한 자신의 임무를 다 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謝玄을 불러들여 建武將軍·兗州刺史·令廣陵相·監江北諸軍事에 제수하였다. (于時苻堅強盛, 邊境數被侵寇, 朝廷求文武良將可以鎮禦北方者, 安乃以玄應舉, 中書郎郗超與玄不善, 聞而歎之, 曰: 「安違衆舉親, 明也. 玄必不負舉, 才也. 時咸以爲不然. 超曰: 「吾嘗與玄共在桓公府, 見其使才, 雖履屐間亦得其任, 所以知之. 於是徵還, 拜建武將軍, 兗州刺史, 令廣陵相, 監江北諸軍事.)²⁷⁾

식견이 넓은 謝安의 추천과 政敵인 郗超의 大國的이고도 탁월한 안목으로 풍전 등화와 같던 東晉은 謝玄의 재략과 용맹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비록 북방을 평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오히려 적지 않은 古土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東晉이 승리하였다 해도 胡族이 여전히 북방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으며, 전체 漢族의 절대수가 차지하고 있는 북방의 漢族들은 이후 3백여 년이나 胡族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漢族과 胡族의 혈통은 서로 융합되어 胡人の 풍속과 외국 종교를 대량으로 漢人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결국 체질적·정신적으로 漢人에게 무형 중에 큰 변화가 생기게 하였다. 한편 등장인물들의 외모와 행동거지를 주로 다루고 있는 畧止편에 謝玄과 관련된 고사가 없어 그의 외모가 어떠한지 알 수는 없으나, 강인한 성격과 소신을 지니고 있으며 위엄 있고 영웅적 기질이 넘치는 전형적인 武人型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어려서부터 출중한 재능을 인정받았던 謝玄은 시국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지닌 經世의 재략가였을 뿐 아니라 후대 중국문학사에 있어 중국 최고의 산수시인으로 불리우는 謝靈運의 친조부로서 그

27) 《晉書》 卷79 〈謝玄傳〉.

《世說新語》를 통해 본 謝玄의 인물형상 135

에게 유전적 요인을 제공한 문학적 재능은 물론 清談과 名理에 뛰어난 名士였으며, 또한 중국 전체 漢族의 역사적 운명이 걸린 대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낸 위대한 장수였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參考文獻〉

- 《晉書》 臺北, 鼎文書局, 1980
- 趙炳華, 徐東轍 共著 《現代文章論》 서울, 열화당, 1977
-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 徐震堉 《世說新語校箋》 北京, 中華書局, 1984
- 楊 勇 《世說新語校箋》 臺北, 正文書局, 1992
- 金長煥 《世說新語》(上·中·下) 서울, 살림出版社, 1996·1997·2000
-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 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 葉朗 著 《中國美學史大綱》 臺北, 滄浪出版社, 1986
- 王能憲 《世說新語研究》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2
- 寧稼雨 《世說新語與中古文化》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 魯迅 《中國小說史略》 臺北, 風雲時代出版社, 1989
- 朴美齡 《世說新語中所反映的思想》 臺北, 文津出版社, 1990
- 宗白華 《美學散步》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 李澤厚 著, 윤수영 譯 《美的歷程》 서울, 東文選, 1991
- 柳月誕 編譯 《高僧傳》 서울, 자유문고, 1991
- 白壽彝 主編 임호섭·임춘성 譯 《중국통사강요》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 宮崎市定 著, 曹秉漢 譯 《中國史》 서울, 역민사, 1986
- 寧稼雨 <世說新語是志人小說觀念成就的標志>;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9/2
- 廖麗鳳 <世說新語之人物群像及描寫技巧研究> 臺灣師範大學碩士論文, 1989
- 葉慶炳 <論世說新語比較人物優劣>; 《書評書目》57, 臺北, 1978
- 葉柏村 <世說新語中所見魏晉清談風尚>;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2/10
- 宗白華 <論世說新語和晉人的美>; 《美學與意境》, 北京, 人民出版社, 1987
- 朴敬姬 <世說新語中人物品鑒之研究> 臺灣政治大學碩士論文, 1982

廖伯森 <世說新語中人物美學之研究> 臺灣東海大學碩士論文, 1990

方碧玉 <魏晉人物品評風尚初探—以世說新語為例> 臺灣國立中興大學碩士論文, 1996

金鎮玉 <世說新語에 대한 一考察>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983

《中文提要》

正史《晉書》以敘事為主旨，在於闡明史實間的前因後果以及相互淵源。從記事的展開過程來看，敘事的核心在於事件本身，在具體且透徹地呈現登場人物的人品、形象(面貌)方面，礙於《晉書》對人物的著墨有限，以至於很難全面的掌握人物的形象。然而，《晉書》的編纂過程中貢獻良多，被用為參考依據的《世說新語》在全篇敘事上則集中於人物形象及人品上，有別於《晉書》的是，其在探討人物性格上的深刻以及多變，書中對人物豐富且獨到的描寫功力堪稱藝術，生動地刻畫出歷史事件以及人物的性格，躍然紙上。

論者考量《世說新語》有鑑於《晉書》以事件作為敘事中心，而將敘事核心突顯於人物形象該點上，在研究方式上捨棄既存的橫向個別分析(例，比較、比喻等表現技巧)或典型類別的分析方式，欲採以縱的面向摘選出散置於各篇目中的人物及其相關內容，給予綜合性的人物分析。

同時，儘管《世說新語》並不具現代意念的小說型態，不過其書中人物在不同狀況下呈現出多樣面貌，或是某些性格或是個性反覆出現在書中被加以強調及詮釋，因此透過對人物透徹的重點強調，可以全盤地了解該人物的形象。本論文是論者直到現在發表的連續論文之一，這次以東晉大書將軍陳郡謝氏謝玄為探討核心，透過此般對人物全面且多重的分析，可將書中魏晉士人當代的思想主流以及品評特徵等考察。

關鍵詞：世說新語, 謝玄, 人物形象, 人物品評, 淝水戰